

청년 + 농촌 × 정책

청년의 농촌 이주와 정착을 돕는 정책사례와 제언

2017.12.21 @마을학회 일소공도_ 청년컨퍼런스

우 성 희 | 청년 연구자, 듣는연구소 공동대표

청년 X 농촌 + 정책

청년의 농촌이주와
정착을 돕는
정책 사례집

2017

삼선재단

농촌으로 이주하는
청년층의
현실과 과제

2015

삼선재단, 희망제작소 등
시민사회단체 공동연구

청소년의 농촌 정주
과정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2017

석사논문

바탕으로

당장의 귀농청년을 위한 정책보다 확장된 관점

미래 세대가 사는 농촌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

	출생연도	경험	특성
베이비붐 세대	1955-1964년	한국전쟁 후 출생, 유신, 냉전, 6월항쟁, 고도성장기	자수성가, 절약, 직업 성취를 위해 개인의 삶 희생
X 세대	1965년-1981년	3저 호황, 정보화와 탈산업 시대, 세계화	소비, 개성중시
밀레니얼 세대	1982년 -2000년	인터넷 디지털 발달, 2007 경제위기, N포세대, 부모보다 가난한 세대,	디지털 내이티브, 가성비, 생존주의, 자율성

(박민제, 2016, 동기부여요인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세대별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등 참고)

행복 연관어

친구 늘 일 항상 좋아하다 부모님
시간 받다 우리 오늘 즐겁다 고맙다
방학 함께 사람 쉬 여유 인생
노력 관심 지금 만나다
가득하다 웃다 마음 알다 먹다 크리스마스 오빠 나 매일 기쁘다
건강 내일 순간 바라다

불행 연관어

군대 개인 결혼하다 남성 힘들다 그래도 부모님
나라 하고싶다 오늘
국가 한국 못하다 사람 너 최순실
박근혜 취업 남 말 준비 나 죽다 일
친구 고민 겪다 노력 남자 총학 피하다 우리
고통 보이다 여성

행복 연관어 : 오늘, 항상, 늘, 지금, 매일. : 현재의 시간과 공간 중요.

‘쉼’, ‘여유’, ‘방학’ : 행복에 관련된 중요한 개념 ‘쉼’과 ‘여유’. (휘게 hygge: 안락하고 쾌적한 삶을 뜻하는 덴마크 어)

부모님과 친구가 행복과 불행 두 영역에서 모두 나타남

=> 청년이 일상에서 얻는 마음의 평화, 행복은 경쟁에서 한 발 떨어져 나와 있을 때.

이름(나이/성별)	지역	귀농·귀촌 연차	일/소속	귀농·귀촌 동기/계기
김민후 (39세/남)	강원 화천	5년	공연 기획	답답한 서울을 떠나 지역에서 극단과 공연기획을 하고 싶어서
유하 (32세/여)	경북 봉화	3년	농사(자급), 품앗이, 마을 일거리(정미소), 지역 프로젝트 실무 등	자급자족, 생태적 삶의 실현 (운동의 지향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
채색 (35세/남)				
박진형 (30세/여)	전남 장흥	3년	자연(숲)에 의존, 수제작 물품, 가공품 교환, 판매	생태적 삶 실천, 의(衣), 식(食) 등의 자립
손형진 (34세/남)				
김양희 (34세/여)	전남 해남	3년	해남 미세마을 공동체	시골에서 농사지으며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살고 싶어서
김혜리 (36세/여)				소비적인 도시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최고니 (34세/남)		1년	농사, 품앗이, 가공(절임배추) 등	생산수단이 없는 삶이 불안, 환경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여
이재경 (26세/여)	전북 남원	3년	(전) 변산공동체 (현) 농사 교사	생태적, 공동체적, 자급의 삶 실현
하수용 (27세/남)				
이애경 (30세/여)	전북 진안	3년	진안군 마을축제 회계 홍보 팀장.	회사를 다니다가 귀농·귀촌교육을 듣고 인턴으로 1달간 마을축제 자원봉사 한 것을 계기로 정착함.

귀농귀촌자를 면담해보니

충남 홍성군

이름(나이/성별)	일/소속	귀농·귀촌 동기/계기
구본경 (21세/남)	풀무학교 졸업, 젊은협업농장	도시 생활 경험 없음. 농촌활동(농촌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에 관심 있고, 농사를 지으면서 해보고 싶음.
김강산 (20세/남)	젊은협업농장	귀농한 아버지에게 영향을 많이 받음. 획일화·제도화된 교육, 사회 제도에서 벗어나 대안을 찾고자 했고, 농업으로 연결됨.
김수인 (26세/여)	치유농장, 사회복지사	대학 농촌봉사활동을 계기로 지역을 알게 되고 농업농촌에 대한 생각의 전환, 치유의 느낌을 받음. 도시의 경쟁 구도와 달리 협동적, 공동체적 농촌 문화에 매력을 느낌.
김은정 (37세/여)	귀농, 젊은협업농장	서울에서 직장생활 경험. 출퇴근과 사람 관계에 지쳐 귀농 결심. 협업농장에서 농사를 배울 수 있다는 점이 메리트로 작용, 협업농장의 지향이나 가치가 좋았음.
장유리 (24세/여)	풀무 전공부 졸업, 홍성뽕따도서관	강원도 농촌마을에서 나고 자람. 일반적인 시골과 다른 홍성 지역의 사람들과 활동, 분위기가 지역에 남아 있도록 했던 힘이 됨.

전북 완주군

이름(나이/성별)	일/소속	귀농·귀촌 동기/계기
김다솜 (25세/여)	무직, 지역 마켓에 셀러 로 참여, (전)전환기술사 회적협동조합	자급자족 지향, 노동에 대한 고민 속에 귀촌 결심. 퍼머컬처학교와 산촌유학센터 등을 통해 지역을 경험하고 이후에 재이주함.
박대선 (30세/남)	농사, 연구프로젝트 등	탈도시 욕구, 지역에 새로운 일이 많이 벌어지던 시기에 이주하면서 다양한 일들을 경험(카페, 출판, 도시재생지원센터, 영농자활, 농촌컨설팅회사, 에너지자립마을, 술박물관, 연구사업, 농사 등).
변세광* (30세/남)	(전)CB센터 근무, 대학원생	귀촌자는 아니나 지역민으로서 청년들이 지역에 남아서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하고, 구조적인 관점에서 농촌 문제를 보면서 공부하고 있음.
황바람 (33세/남)	박사과정	지역, 공동체적 지향을 갖고 있던 중 임경수 박사(멘토)와 먼저 이주한 친구가 동기가 되어 이주함. CB센터 근무.

삼선재단 외 (2015)

농촌에 사는 청소년, 후계농도 마찬가지

여기서 살겠다는 건 저는 그냥 어느 정도만 벌고 살겠다. 그냥 제가 힘들지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거 웬만큼 살겠다?
여기(도시)는 좀 약착같이 벌고, 여기(농촌)에서는 약간 나의 취미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걸 즐기면서 여기선 살 수 있겠다 뭐 이런 느낌이죠.

– 앞사귀(여, 19, 지역출신)

그리고 요즘 선진화 된 농가들은 막 몇 억씩 하는 농가 보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행도 자주 다니세요. 저 아는 분도. 해외도 자주 다니고 연수도 자주 다니시고. 그냥 밥 먹듯이 가세요 진짜로. 그런 짬. 다른 분들도 하는데 나라고 못할 건 없다. 특히 나는 더 그렇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 정호(남, 19, 귀농·귀촌)



- ‘현상’으로서 청년 세대의 귀농귀촌 변천사

- 농민운동(’80), IMF(’90) < 도시와 다른 삶의 방식 찾아(’10)

- 주요 지역* “최근 패턴의 청년 귀농귀촌은 2010년대 전후로 활발해 진 듯” (삼선재단 외, 2015)

도	강원			충북		충남		경북
시/군	정선군	화천군	홍천군	제천군	옥천군	금산군	홍성군	상주시
응답자의 거점	동강 내셔널 트러스트	화천귀농 학교	홍천동면 교회	제천 덕산 간디학교	옥천순환 경제공동체	정금산간디 학교	홍동, 장곡면	상주시 귀농·귀촌 정보센터
청년 귀농·귀촌 규모	주변	주변	주변	주변	주변	주변	주변	주변
	5명	5명 가량	3가구	교사 10여 명	소수, 파악 어려움	5명	20여 명	6명 가량

도	전북					전남	경남
시/군	부안군	순창군	진안군	남원시	완주군	해남군	산청군
응답자의 거점	변산공동체	귀농·귀촌 지원센터	진안마을 만들기센터	산내면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	미세마을	산청민들레 공동체
청년 귀농·귀촌 규모	주변	군 단위	군 단위	면 단위	군 단위	군 단위	공동체 내
	20~30명	100여 명	1년 6가구 내외	8~9명	30여 명	96가구	12명 정도

삼선재단, 녹색사회연구소, 모심과살림연구소, 문화연대, 전국귀농운동본부,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희망제작소. (2015) 농촌으로 이주하는 청년 층의 현실과 과제

* 청년들의 귀농귀촌을 지원하는 선배/단체가 있는 15곳: 영월, 화천, 홍천, 상주, 산청, 남원, 부안, 순창, 완주, 진안, 해남, 옥천, 제천, 금산, 홍성

- 2016년 30대 이하는 전체 귀촌인의 63.9%인 243,413명, 귀농인은 25.8%인 5,307명. 매년 증가 추세. (통계청, 2016)
- 30대 이하 귀농귀촌자 패턴 (농림부, 2017)
 - 귀농: U턴, 직업적 이유
 - 귀촌: U턴과 I턴 많아

이촌향도

도시의 흡입요인 & 농촌의 배출요인

청년 귀농귀촌

도시 배출요인 & 농촌 흡입요인

“다른 삶 방식”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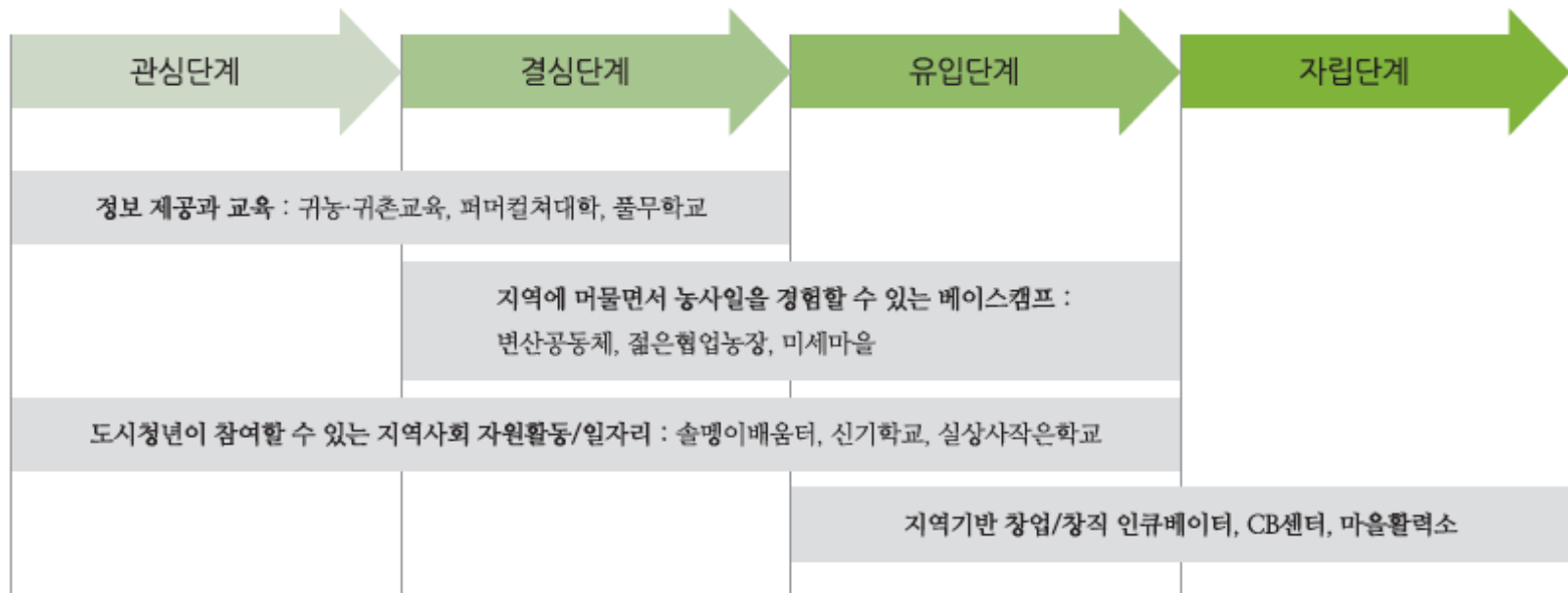
30대 이하 귀농 귀촌 이유

	자연 환경이 좋아서	도시 생활에 회의를 느껴서	가족 및 친지와 가까운 곳에서 살기 위해서	본인이나 가족의 건강상의 이유로	실직이나 사업의 실패로 인해	비싼 도시 생활비 때문에	농업의 비전 및 발전 가능성을 보고	가업을 승계하기 위해	자녀 교육을 위해서	기타	계
귀농자	9 · 9	1 1 · 5	1.8	1 7 · 8	7 · 5	5 · 4	2 3 · 1	2 3 · 0	0	0	10 0
귀촌자	2 7 · 4	1 5 · 9	19.1	6 · 9	6 · 0	8 · 1	5 · 5	5 · 8	0 · 9	4 · 4	10 0. 0

- 자본이 없음
- 성장과 진로탐색(시도)의 시기인 청년기
 - 성장과 배움에 대한 욕구가 강한 20대 & 자신이 추구하는 삶을 이뤄나가려는 30대
- 농촌과 농업을 경험, 학습한 적이 없음
 - 가볍게 농촌을 경험하고 자신과 맞는지 탐색하는 연착륙의 과정이 필요

● 청년의 농촌 지역 진입을 돕는 조직이나 프로그램

위와 같이 청년의 지역 진입 과정에서 어려움은 청년 개인이 개별적으로 단계를 거치는 것보다 진입을 돕는 조직 또는 프로그램을 잘 활용한 경우에 비교적 쉽게 극복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인터뷰한 청년들이 도움을 받은 프로그램들이 각 단계별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펴보았다.



- 자본과 초기 소득 없음
- 문화, 교육, 교통 인프라와 기회 부족

귀농·귀촌 한 청년 19명이 말하는 ‘어려움’과 ‘필요한 것’

어려움

- 전업농 청년은 초기 영농비용과 낮은 소득, 농지 불안정성
- 주택과 농지는 가장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어려움
- 귀농자를 경계하는 마을 정서가 진입장벽으로 작용
- 생태농업을 지향하지만 기술 부족으로 시행착오
- 지역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공간의 불안정성
- 또래 청년이 없어서
- 본인은 귀농귀촌 후 삶의 만족도가 높지만, 가족과 지인을 포함한 사회전반의 부정적 인식

삼선재단 외 (2015)

필요한 것

- 함께 살고 활동할 청년들
- 관계를 연결해 주는 네트워크
- 단기 체류 가능한 귀농인의 집
- 기본 생활비와 주거비용
- 실질적인 농지구입자금 지원 정책
- 은퇴농 농지와 청년 귀농자를 연결해 줄 농지 은행
- 생협 등에서 귀농자 생산 물품 취급 기준을 완화하거나, 귀농자 장터 등을 열어서 판로를 확대
- 귀농·귀촌 전 청년들에게 농활이나 일손돕기 등을 통한 귀농 체험, 귀농한 청년들과 교류 기회 만들기
- 가치관을 공유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동료로 만날 프로그램

- 연고 있는 곳(부모님이나 지인) > 정책이 좋은 곳

청년 귀농·귀촌이 비교적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지역* 에서 해당지역에 청년 귀농이 용이한 이유

첫째, 농사 외에 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가 존재

둘째, (청년이 유입하는 매개 역할을 하는) 문화 동아리 및 단체나 학교가 있음

셋째, 먼저 귀촌한 청년 그룹이 있어 이를 통해 다른 청년들이 연쇄적으로 귀촌함

넷째, 청년의 재능과 지역 일자리를 연결하는 거점 조직이나 인물이 있음

다섯째, 비교적 저렴한 토지

여섯째,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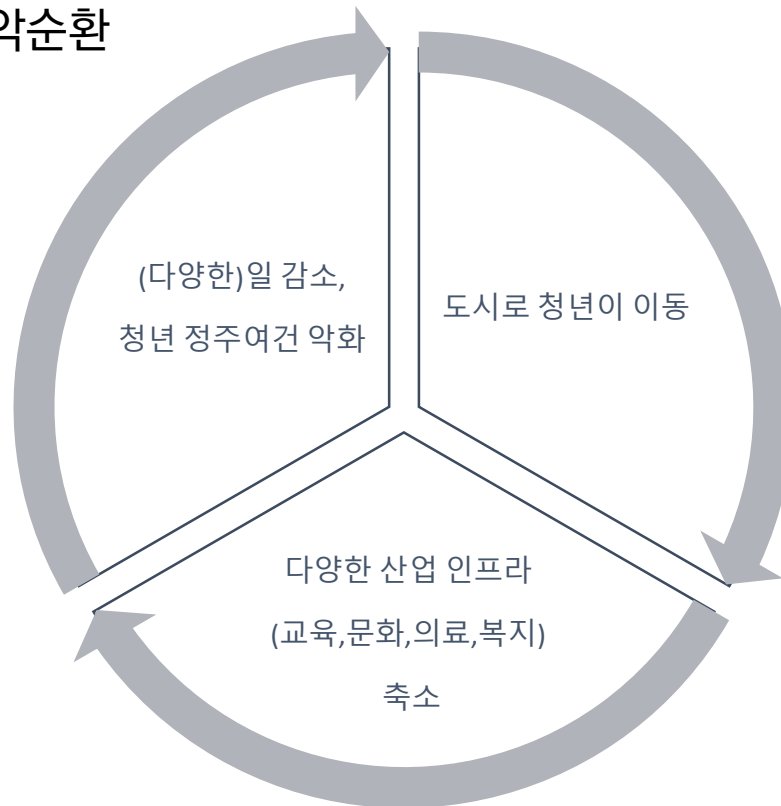
일곱째, 농사를 지으려는 청년들이 도움 받을 농업생산자와 농사 멘토 존재

여덟째, 텃새가 적고 젊은이를 환대하는 지역문화

(삼선재단 외, 2015)

* 청년들의 귀농귀촌을 지원하는 선배/단체가 있는 15곳: 영월, 화천, 홍천, 상주, 산청, 남원, 부안, 순창, 완주, 진안, 해남, 옥천, 제천, 금산, 홍성

- 2016년 30대 이하는 전체 귀촌인의 63.9%인 243,413명, 귀농인은 25.8%인 5,307명. (통계청, 2016)
- 농촌 과소화의 악순환



농업하기도 힘든 여건이지만,
농촌에 농업만 남았네...

- 귀농자는 직업적 이유로, 귀촌자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아서
 - 귀농자: 직업적 이유. 30대 귀농자 가업 승계(23%), 농업의 비전과 발전가능성(23%) * 전연령대 : 자연환경이 좋아서(29.4%)
 - 귀촌자: 자연환경이 좋아서(27.4%), 가족친지와 가깝게 살기위해(19.1%), 도시생활에 회의를 느껴서(15.9%)
 - 청년이 귀농에 접근하기 어려운 현실
 - 청년 귀농자는 연고지로 이주 비율이 높음: U턴 + 연고지로 이주 경향이 30대 이하(59,9%)로 전 연령대(48.0%)보다 높음
 - 연고가 있는 곳에서 경제적, 사회적, (농업 경험) 자본을 쉽게 취득할 수 있음
 - 거꾸로, 청년들이 연고 없는 곳에 진입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
- 청년이 많은 지역으로 청년들이 귀촌/귀농함
 - 농사짓는 청년들, 후계농도 농촌에 젊은 사람이 많이 살기를 바램
 - 청년 귀농귀촌인의 가장 큰 고충은 문화, 교육, 교통 등 인프라 부족
 - 청년이 살 만한 농촌 정주여건을 만드는 사람은 청년들 => 귀농과 귀촌의 조화

삼선재단 (2017)

초보농부에게는 자재비보다 생계비 지원이 필요해요

- 처음 농사에 진입하는 청년이 농자재를 잔뜩 사긴 힘들어요.
- 친환경 농업하려는 청년에겐 기존의 자재비 지원사업이 효용 없어요

농업 경영체 등록 조건은 어려워요

- 귀농 2년 안에 어떻게 농장을 설립해요?
- 임대한 땅으로는 정책지원 받기 어려워요

과다한 교육 시수, 뻔한 교육방식이 힘들어요

- 매 달 몇 십 시간, 농번기엔 힘들어요.
- 재밌고 유익한 교육이 주변에 없고 ‘클릭’ 이수는 시간 아까워요.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정확하고 상세한 설명이 필요해요

- 군 담당자와 도 담당자 얘기가 달라요

청년이 사업을 평가할 기회가 없어요

삼선재단 (2017)

청년기의 특성을 고려해야 해요

#가벼운 경험과 탐색 #성장과 배움이 필요한 시기 #정착하지 않아도 실패 아닌 #떠난 청년도 도농교류의 주체다 #직업교육으로서 가볍게 농업을

귀-농업 뿐 아니라 귀-농촌 지원도 필요해요

#귀촌은 사각지대 #귀농지원만 집중되어있어 #농업 말고도 농촌에 필요한게 많아

단계적, 종합적 접근이 필요해요

#한 개의 정책으로 청년이 크지못해 #탐색-준비-정착 단계별 사고

청년과 농촌이 직접 부딪히지 않도록 완충지 조성이 필요해요

#청년과 농촌의 연결고리 #시간이 필요해

현장에서 정책을 발굴하고 필요 자원을 연계하는 민관협력 시스템이 필요해요

#청년을모르는지자체 #현장에서 정책을

청년 개인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정주 생태계를 조성해야 해요

#개별청년 유입만 신경쓰지 말고 #청년 스스로 정주여건 조성하도록 #간접지원 #개인보다 집단에 #귀농귀촌에서 지역활성화로

(1) 성장과 탐색의 시기인 청년기 특성 이해

- 성장과 진로탐색의 시기
- 가볍게 농촌을 경험하고 탐색하는 연착륙 과정 필요
- 청년 내부(20대, 30대) 차이 고려
 - ✓ 성장과 배움에 대한 욕구가 강한 20대
 - ✓ 자신이 추구하는 삶을 이루어 나가려는 30대

(2) 정착에 집착하지 않는 지원 필요

- 청년의 욕구와 지역의 필요 사이 간극
- ‘정착해야 한다’면 청년도, 지자체도 모두 부담
- 정착을 정책 성패의 지표로 삼는 평가방식 극복 필요
- 떠난 청년도 잠재적 도농교류 주체로 성장

(3) 귀농업 뿐 아니라 귀농촌도 지원

- 귀농보다 귀촌을 원하는 청년이 많지만
- 연고나 자본 없이 귀농에 바로 진입은 어려워
- 농업 외 농촌에 진입, 정착할 수 있는 정책 지원 턱없이 부족

(4) 청년과 농촌이 직접 부딪히지 않도록 완충지 조성

- 오랜 기간 함께 산 경험이 없는 농촌 주민과 청년들의 문화, 삶의 방식 등 차이
- 청년과 지역사회가 교류할 기회와 시간을 얻음
- 청년 또는 지역사회가 충돌시 중재하고 도움을 청할 중간지대

(5) 단발적 정책보다 종합적, 단계적 지원

- 종합적 지원: 하나의 정책으로 청년이 성장하지 않는다
- 단계적 지원: 탐색 – 준비 – 독립의 단계 고려
 - ✓ 탐색기/관심기: 도시 청년이 농촌에 관심을 갖고 해당 지역을 탐색하는 시기
 - ✓ 준비기: 지역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해보며 배우는 시기
 - ✓ 독립기: 농장을 창업하거나 농업 외 일을 창업하는 등 지역에서 자립하는 시기

(6) 현장에서 정책을 발굴하고 필요한 자원을 연계하는 민관협력 시스템

- 청년을 모르는 청년정책, 하향식과 칸막이 행정을 극복
- 민간과 협력하여 현장에 필요한 사업을 만들어 내야 실패하더라도 경험이 지역사회 자산으로 축적됨

(7) 청년 개인에 대한 지원이 아닌 정주 생태계 조성

- 행정이 개별적으로 청년의 이주를 지원하는 방식(지원금 등)보다는, 청년들이 지역에 필요한 것을 스스로 만들도록 지원
- 젊은이가 살 만한 정주여건과 문화 조성

	사례 명	실행 주체	내용	문의처
①	인턴십 지원	완주군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청년귀농귀촌자에게 월 50만원 지원	완주군청 농업농촌식품과 귀농귀촌팀
②	게스트하우스 운영	완주군	예비 귀농귀촌자가 일정기간 체류하면서 지역을 탐색하도록 게스트하우스 숙박비 중 1일 15,000원 지원	완주군청 농업농촌식품과 귀농귀촌팀
③	Two-Job 지원	완주군	귀농귀촌자가 법인이나 조합 등에 취업시 고용주에게 최대 50만원까지 월급의 50% 지원	완주군청 농업농촌식품과 귀농귀촌팀
④	청년인턴 지원사업	완주군	만19~39세 미취업 청년이 군내 공동체에 인턴으로 취업시 고용주를 통해 월 100만원 임금 지원	완주군청 공동체협력과 청년정책팀
⑤	청년셰어하우스	완주군	청년이 많은 읍·면 지역에 있는 주택·민간 하숙시설을 군에서 입차하여 무주택자 청년이 월 8만원에 6개월~2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셰어하우스 조성	완주군청 공동체협력과 청년정책팀
⑥	순창군 청년 공유주택 '더 집'	肅川縣사무소 살림(주)	청년이 지역에 머물 수 있는 공유주택으로, 거주기간 동안 지역사회에 적응하도록 노력	肅川縣사무소 살림(주)
⑦	농촌생활학교	순창군 귀농귀촌 지원센터	3040세대에 집중된 6주 장기합숙 교육	순창군 귀농귀촌지원센터
⑧	도시청년 초보농부 플랫폼 조성 운영	충남도	농장 3~5개로 청년을 교육할 플랫폼을 조성하고, 이곳에서 40세 이하 도시 청년이 1년 동안 월 80만원의 교육비를 받으며 훈련을 받음	충남도 농업기술원 역량개발과 귀농지원팀
⑨	청년창농 안정지원	충남도	만 18세~40세 신규 귀농인에게 월 80만원씩 1년간 지원	충남도 농업기술원 역량개발과 귀농지원팀
⑩	도시청년 농촌정착 충남도 성공모델 구축	충남도	귀농귀촌 5개년계획을 세우면서 도시청년의 농촌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을 '탐색-준비-창업'의 3단계로 배치함	충남도 농업기술원 역량개발과 귀농지원팀
⑪	지역친근형 청년인재육성 프로그램	충남도	도 내 청년활동을 지원하는 단체 5곳을 선정하여 청년의 교육사업과 커뮤니티 활동을 위해 각 2,000만 원 지원	충남도청 미래정책과 청년정책팀

	사례 명	실행 주체	내용	문의처
⑫	청년 농업·농촌 진입 플랫폼	홍성군	농업실습 네트워크 농장 + 비농업적 교육기관 네트워크로 구성된 플랫폼	협)젊은협업농장
⑬	2030 청년농부 인큐베이팅 시스템 구축사업	홍성군·예산군	지역에 유입되는 청년들을 귀농귀촌 유형 및 5단계로 나누어 정착 지원 시스템을 구축	홍성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체험팀
⑭	홍성통	홍성군	홍성군의 10개 행정부서와 100여개 민간조직이 참여하는 월례 지역 회의체	홍성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⑮	농촌과소화 대응인력 육성사업	전북도	읍면형, 마을형, 농장형의 세 가지 유형 별로 청년을 채용하여 현장의 과소화 대응 및 지역 활성화 활동에 배치, 월 200만원(농장형은 80만원) 급여 지급	전북도청 농축수산물국 농촌협력과
⑯	안성면 공동체 활성화 지원단	전북도·무주군	무주군 안성면에 과소화 대응활동을 기획하고 추진할 청년 10명을 선발하여 사업단을 구성하고 월 200만원 급여 지급 (*⑮의 읍면형 유형)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안성면 농촌 과소화 대응 사업단
⑰	청년 창농 활성화 정책	경북도	농고 졸업생, 청년귀농인, 일반귀농인 등 대상 별로 지원하는 교육 및 사업 내용	경북도청 농축산유통국 농업정책과
⑱	귀농인 정착지원금	강원도	귀농한 45세 이하 2인 이상 가구의 청년에게 첫 해 월 80만원, 둘째 해 월 50만원 생계비 지원	강원도청 농정과
⑲	청년창업농장	고흥군	지역 내 비닐하우스를 수리하여 창농 청년에게 2년 임대	고흥군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 담당
⑳	청그라미	아산YMCA	아산YMCA가 지역 청년 활동을 위해 조성한 공간	아산YMCA
㉑	여성귀농학교	전국귀농 운동본부	2009년부터 매년 열리는 여성 귀농귀촌 희망자와 귀농귀촌자 간 관계맺기 프로그램	사)전국귀농운동본부
㉒	여성들을 위한 일상기술 캠프	완주속녀회·진한 기술사회적협동조합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일상기술 교육, 성평등한 교육내용과 방법을 담음.	완주속녀회

1. 초기 진입 장벽 낮추기

농촌에 머무르며 지역을 탐색하고 네트워크를 쌓을 기회 완주군 '인턴십 지원'과 '게스트하우스 운영'

초기 거주공간에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순창군 청년 공유주택 '더 집'

오래 머무르며 지역을 깊이 탐색하는 교육 순창군 귀농귀촌센터 '농촌생활학교'

2. 농사를 지어보고 결정하면 안 되나요?

농업에 진입할 현장의 교육적 플랫폼 충남도 '도시청년 초보농부 플랫폼 조성 운영'
홍성 '젊은협업농장'을 중심으로 한 청년 농업·농촌 진입 플랫폼

귀농 초기를 버틸 생계비 지원 충청남도 '청년 창농안정지원' 강원도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

빈 손으로 온 청년도 농사를 바로 지을 수 있도록 고흥군 '청년창업농장'

3. 귀농보다 귀한 귀촌 정책

유연하고 다양한 농외 일자리 전북도 '농촌과소화대응인력육성사업' 완주군 '인턴십 지원', 'Two-job지원', '청년인턴 지원사업'

4. 귀농·귀촌 행정의 접근방식 변화

단발적 지원이 아닌 단계적, 종합적 지원 홍성군, '2030 청년농부 인큐베이팅 시스템 구축사업'

필요한 정책을 현장에서 발굴·연계하는 민관협력 시스템 홍성군 민·관 거버넌스 '홍성통'

청년 귀농·귀촌과 농촌 지역활성화 연계 무주군 '안성면 공동체 활성화 지원단' 순창군 귀농·귀촌지원센터

5. 청년 개인의 귀촌을 지원하기보다 청년이 살만한 지역 생태계를 조성하는 정책

청년정책과 귀농·귀촌 정책의 조화 완주군 청년정책 충남도 청년정책과 '지역착근형 청년인재육성 프로그램'

여성이 살만한 농촌에 미래가 있다 귀농운동본부 '여성귀농학교': 관계가 필요해 완주숙녀회 '여성들을 위한 일상기술 캠프'

1. 초기 진입 장벽 낮추기

농촌에 머무르며 지역을 탐색하고 네트워크를 쌓을 기회 완주군 '인턴십 지원'과 '게스트하우스 운영'

- 청년 유입을 촉진하는 3박자: 거주공간, 생계비, 네트워크
- 동시에, 종합적 지원이 효과적

- 인턴십 지원사업: 초기 귀농귀촌청년 월 50만원 생계비 지원 +지역기반 공익활동
- 청년귀농귀촌자 거점 게스트하우스 숙박비 지원

- ✓ 거주지
- ✓ 생계비

물리적 기반

비물리적 기반

- ✓ 사회적 자본
- ✓ 지역에 대한 이해

초기 거주공간에서 관계 형성

순창군 청년 공유주택 '더 집'

- 공동생활 경험 없는 청년들에게 공동생활 경험 유도
- 농촌과 청년을 연결하는 '휴먼웨어' 중요

오래 머무르며 지역을 깊이 탐색하는 교육

6주 합숙교육 순창군 귀농귀촌센터 '농촌생활학교'

- 정착을 위해서는 단기보다 장기 교육이 효과적
- 귀농귀촌 두려움 없애기, 지역에서 사는 다양한 모습 보여주기
- 교육 이후 정착 지원이 중요

2. 농사를 지어보고 결정하면 안 되나요?

농업에 진입할 현장의 교육적 플랫폼

충남도 '도시청년 초보농부 플랫폼 조성 운영'

- 지역 내 3~5개 농장을 묶어 플랫폼 조성/ 플랫폼 조성 및 관리운영비 개소 당 1,830만 원 지급
- 최장12개월 청년에게 월 80만 원/ 멘토에게 월 40만 원 지원

- 양질의 플랫폼 조성이 관건

귀농 초기를 버틸 생계비 지원

충남도 '청년 창농안정지원' 강원도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

- 청년 창농안정지원: 영농경험 없는 예비창업농과 창농 3년 이내 청년/ 1년 동안 월 80만원
- 귀농인 정착지원금: 45세 이하 2인 이상 가구/ 1년차 월 80만원 - 2년차 월 50만원

- 농사 경험을 쌓고, 농사 배울 시간을 벌어줌
- 생활비로 쓸 수 있어서 유용 (시군에 따라 농업 외 지출에 대한 이해 부족하기도)

빈 손으로 온 청년도 농사를 바로 지을 수 있도록

고흥군 '청년창업농장'

- 유희(청년이 접근하기 쉬운 작목) 비닐하우스를 수리해 청년에게 2년 임대

- 적합한 비닐하우스를 찾는 것이 관건: 취지에 공감하고 시설 축소 의사 있는 선도농가의 시설물 유리
- 호응은 높지만 안착이 쉽지 않아: 많은 노동력과 영농경험 필요한 시설재배가 초기 창농청년에게 어려워
- 지역의 농업, 유통 등 환경 고려하여 적합한 농업시설물을 청년에게 연계 필요

젊은협업농장 청년 A씨의 하루 일과표

농작업은 농한기(한여름, 겨울) 때는 반나절 작업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는 6시 30분 출근~4시 정도(수업시작하기 30분전 마치는 것은 원칙)까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일정

월요일: x

화요일: 지역의 이해, 생명수읽기(일본어)

수요일: 동아시아사 수업

목요일: 유기농업수업, 화학기초

금요일: 사진스터디

일요일: 무교회집회, 홍순명선생님 성경읽기

저는 지역의이해, 동아시아사, 유기농업, 기초화학, 사진스터디를 참가하고 있습니다.

삼선재단 (2017 발간예정)



청년농부 영농조합법인 청년귀농 교육농장 교육생 모집

- 교육기간 : 2017년 4월 ~ 11월
- 교육장소 : 충남 홍성군 금마면 장곡면, 홍동면 일대
- 교육내용 : 농업 현장 실습 교육, 농촌 지역 학습, 마을 및 농민 단체 활동 등
- 생산실습훈련비 : 80만원 / 월

- 모집인원 : 5명
- 모집기간 : 2017년 4월 30일까지 이메일 신청 접수
- 지원자격 : 만 20세 이상 39세 이하의 귀농 예정 청년, 교육 수료 후 농업경영체 등록을 통해 창농이 가능한 자
- 지원방법 : 간단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youngfarmerson@gmail.com으로 제출, 접수 후 개별 연락 면접

- 문의 : youngfarmerson@gmail.com

홍성 '젊은협업농장'을 중심으로 한 청년 농업·농촌 진입 플랫폼

- 플랫폼은 마을 전체
- 농업실습 네트워크와 비농업 교육기관이 결합한 플랫폼
- 플랫폼이 청년과 지역 사이 완충 역할



플랫폼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

- 청년들의 생활비
- 농업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 플랫폼 구성에 소요되는 비용: 지역에 있는 여러 자원을 네트워킹 하여 플랫폼을 구성하는 것
- 농업 외 교육 활동에 필요한 비용
- 스태프 운영비: 플랫폼에 소속된 청년들을 위한 교육과 활동을 운영할 상근인력 운영비용

농업·농촌 진입 교육적 플랫폼을 조성하려면

- 인력은 총괄 코디네이터와 농업 교육 담당자, 교육 운영을 할 스태프, 회계와 사무업무 담당자, 농업 외 창업 등 교육 연결 담당자로 구성되는 것이 적절함
- 면 단위마다 이러한 인적 구성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이뤄진다면, 지역별 특화된 농업교육 플랫폼을 구상할 수 있을 것임
- 하드웨어는 지역에 있는 기존 시설물(체험장, 마을사업 시설, 공동시설)을 활용하면 될 것

3. 귀농보다 귀한 귀촌 정책

유연하고 다양한 농외 일자리

전북도 '농촌과소화대응인력육성사업'

- 읍면형: 과소화 심한 농촌 면에 청년 그룹(10명 단위)이 들어가 지역 활성화 기획, 월 200만 원
- 마을형: 중간지원조직에 소속되어 과소화 마을 5-6곳 일 담당, 월 200만 원 지원
- 농장형: 배울 기반이 있는 영농조합에 청년이 활동하고 월 80만 원 지원

- 청년을 원하는 적극적 지역 선정
- 채용 후 바로 일하기보다 지역에 익숙해지는 과정 필요
- 그룹 및 일자리로 농촌에 진입하므로 귀촌 관심 청년이 농촌살이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듦

완주군 '청년인턴지원사업'

➤ 군 청년정책팀 군 내 19~39세 미취업청년 대상

- 농촌활력사업 결과 지역 내 사회적경제 일자리 수요 늘어남 - 청년과 연결
- 사업장과 인턴 사이 고용계약이 잘 이행되는지 조정, 관리 필요 - 약자인 청년 보호, 사업의 발전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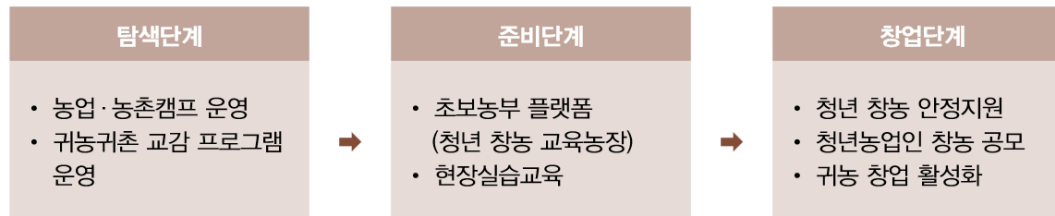
[현장 목소리] 청년귀농귀촌자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도시의 일자리와 달라요.

"도시처럼 야근하며 돈 벌 거면 도시에서 살죠. 지역에서 내가 뭘 할 지 알아갈 시간이 필요해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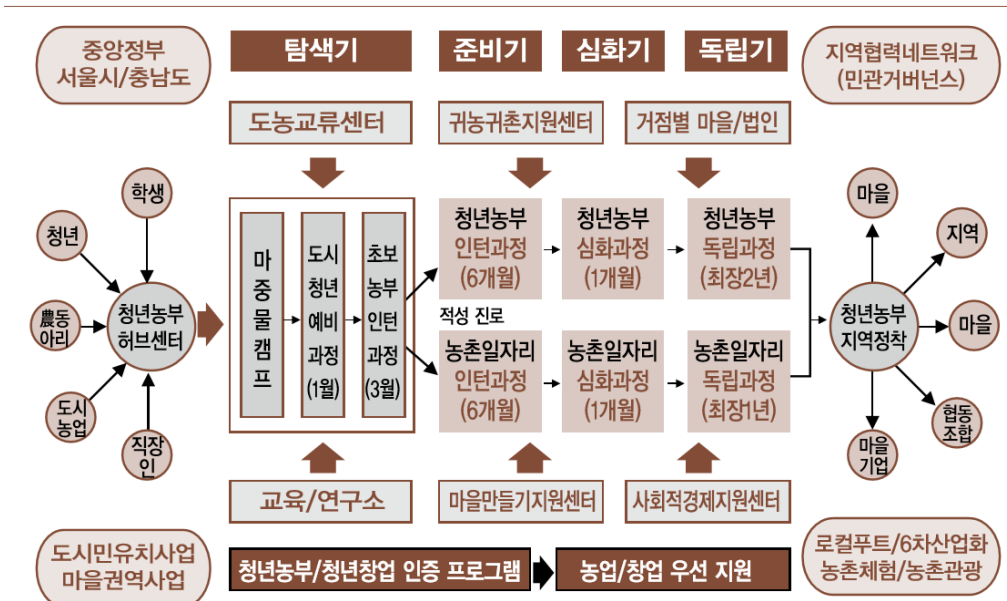
4. 귀농·귀촌 행정의 접근방식 변화

단발적 지원이 아닌 단계적, 종합적 지원

충남도 '도시청년 농촌정착 충남도 성공모델'



- 탐색기/관심기: 도시 청년이 농촌에 관심을 갖고 해당 지역을 탐색하는 시기
- 준비기: 지역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해보며 배우는 시기
- 독립기: 농장을 창업하거나 농업 외 일을 창업하는 등 지역에서 자립하는 시기



홍성군, '2030 청년농부 인큐베이팅 시스템 구축사업'

경북도 '청년 창농 활성화' 개념도



필요한 정책을 현장에서 발굴·연계하는 민관협력 시스템 홍성군 민·관 거버넌스 '홍성통'

- 현장의 요구와 아이디어가 군의 사업으로 연결되는 일상적 소통창구
- 홍성통: 10개 행정부서와 113개 민간조직이 참여하는 지역 회의체. 월 1회 비 격식적 모임
- 연도별 공동 학습. 2017년 '청년을 지역에 어떻게 정착하게 할 것인가' 주제

위원장도 없고, 공식적으로 부여받은 권한이나 예산도 없는데 매달 사람이 모여요. 때로는 많이 오기도, 적게 오기도 하고
참관인도 자유롭게 올 수 있어요. "이게 거버넌스냐?" 라고 물을 정도로 격식이 없는데도 잘 운영되는 이유는
참여자들이 이곳에 오면 지역 내 다양한 행사를 쉽게 홍보할 수 있고, 협력 방안도 쉽게 찾기 때문이에요.
현장에서 필요한 것을 → 군 담당자가 의견을 듣고 → 공모사업 등으로 연결되어요.
또는, 군에서 '이런 사업은 어떻게 풀면 좋을까?' 를 묻고 현장에서 답을 얻어요.

5. 청년 개인의 귀촌을 지원하기보다 청년이 살만한 지역 생태계를 조성하는 정책

청년정책과 귀농·귀촌 정책의 조화 완주군 청년정책 충남도 청년정책과 '지역착근형 청년인재육성 프로그램'

- 완주군 청년조례: 다른 지역과 달리 '거주,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청년에게도 지원할 수 있다' 명시
- 청년정책의 주요 지점은 귀촌청년과 지역출신청년 간 교류 촉진
- 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간 교류 활성화, 청년쉐어하우스

도시청년이 처음부터 농사짓는 건 어렵지만, 귀촌한 지 3~5년 정도 지났을 때 농사를 짓겠다는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군 단위 청년정책에는 청년 귀촌정책과 뗄 수 없어요. 귀촌청년과 지역청년 간 교류가 중요한 미션이에요. 청년은 청년들이 많은 곳으로 가요. 농촌에 청년이 살기 좋은 생태계가 조성되면, 고령화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예요.
- 완주군 청년정책 담당자 (전 귀농귀촌 담당자)

청년 귀농귀촌과 농촌 지역활성화 연계

순창군 귀농귀촌지원센터의 전략

- 1단계는 귀농귀촌 -> 2단계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 귀농귀촌 청년들의 자생적 공동체 조성을 촉진, 지원 (사단법인 '10년 후 순창' 등) -> 지역활성화 도모
- 마을만들기지원센터와 긴밀하게 협력

여성이 살만한 농촌에 미래가 있다 귀농운동본부 ‘여성귀농학교’: 관계가 필요해 완주숙녀회 ‘여성들을 위한 일상기술 캠프’

- 저출산 고령화가 걱정이라구요? 농촌은 미래세대가 살고싶은 문화로 바뀌어 갈 수 있을까?
 - 멘토도, 귀농인 대표도 전부 남자.
 - 귀농귀촌 전에 귀농귀촌 교육의 가부장성에 나가 떨어짐.
 - 귀농자 여성 간 관계 맺기 힘들어.
 - 비혼여성은 집 얻는 정보도 느려.
 - 권위적인 지역에선 젊은 남자도 살기 힘들어.
 - 성차별적, 보수적 지역사회에서는 청소년도 남지 않으려 해.
 - 여성은 승계농의 3%(통계청, 2014).

단편적인 출산장려정책이나, 여성을 부수적 일자리에 머물게 하는 제도보다 여성의 농산업 진입 촉진 등 ‘적극적 조치’ 필요

여자들은 설거지하고 남자들은 커피마시고... 그게 미안해서 여자친구한테 농촌에서 살자고 말하지 못하겠어요.

주변에서 얼마나 언니들, 이모들의 삶이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요. 결혼하지 않고, 아이도 낳지 않을 거예요. 귀농귀촌한 언니들이 재미있게 사는 걸 보면... 저렇게 여기서 살아도 괜찮겠단 생각이 들어요.

— 농촌 여성 청소년들

농촌에 살려는 청소년들에게도 영향을

청소년의 농촌 정주 선택은

'안정감을 느끼는 지역에서 성장하면서 진로 타협안을 찾는 과정'에서 이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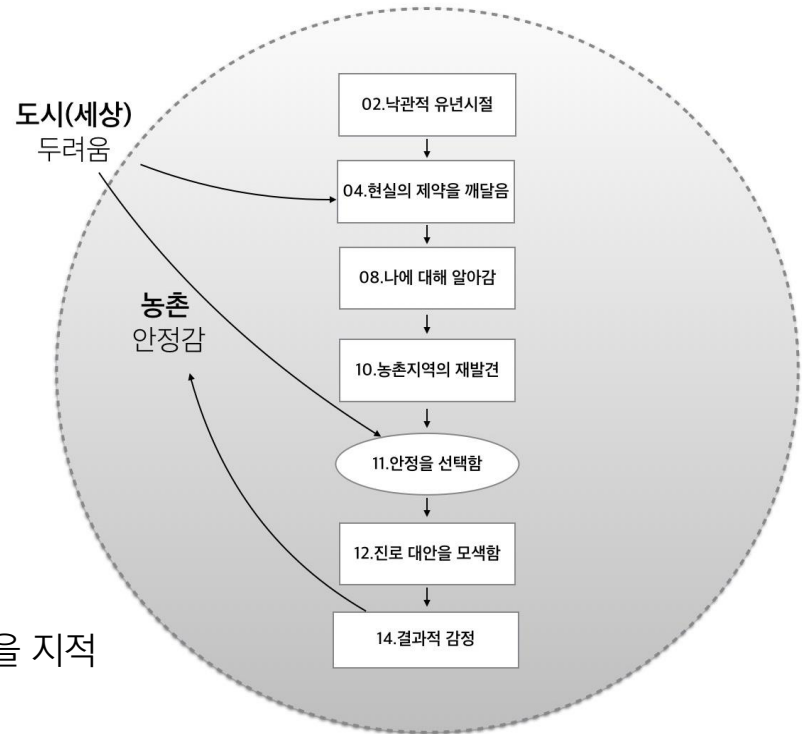
농촌 청소년들은 정주를 저해하는 요소로

첫째,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점,

둘째, 지역에서는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없다는 점,

셋째, 또래가 없어서 겪는 외로움,

넷째, 배움과 일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가로막는 불편한 대중교통을 지적



이들은 농촌에서도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굳이 지역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고 하였는데, 농촌이 자신에게 안정적이고 매력적인 공간이라도 그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생활양식의 선택지가 현저히 적기 때문에 자신이 추구하는 삶을 꾸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동을 고려하게 된다고 하였다.

미래세대의 꿈 자본의 불평등을 가져오지 않을 농촌

농촌이 제공하는 진로 기회와 삶의 방식의 다양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농촌 내에서 어떻게든 살기 위해 자기 꿈을 축소하는 청소년들의 모습도 발견되었다.

- 농촌 여성 청소년에게 더 강하게 나타나는 진로타협
 - 욕망을 줄이고 그 안에서 만족하고자 하는 ‘불안의 회피’에 가까운 모습이 여성 청소년들에게서 많이 발견되었다. 진로 장벽을 연구한 학자들은 여성이 높은 진로 장벽을 경험하였다고 보고하였고(Farmer 등, 1985: 손은령, 2001: 송병국, 전주연, 2013에서 재인용), 진로 타협 이론에서도 직업의 성역할에 대한 인식이 진로 타협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보고되는 것처럼(Gottfredson, 1981: 황매향, 2007에서 재인용), **여성 청소년들에게 진로의 선택지는 전통적으로 여성적 직업이라고 여겨진 것들에 한정되어 있었다.**
- 꿈꾸는 능력인 ‘꿈-자본’의 불평등
 - 꿈꾸는 능력인 ‘꿈-자본’은 다른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자본을 가능케 하는 씨앗 자본의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꿈-자본’의 불평등은 다른 자본의 불평등을 가져오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김홍중, 2016b). **농촌에 산다는 이유로 꿈 포부를 축소하게 되면 이들에게 ‘꿈-자본’의 불평등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 지역의 보수적 재생산이 가져올 ‘꿈-자본’의 불평등 문제

귀춘녀의 세계란

팟빵
아이튠즈



[카테고리] 교육 및 기술

귀춘녀의 세계란

유기농 삶을 원하지만 뻥속까지 마트유저인 도시녀와 시골에 살지만 도시 음식이 그리운 귀춘녀의 무항생제 방사유정란 팟캐스트



8

구독하기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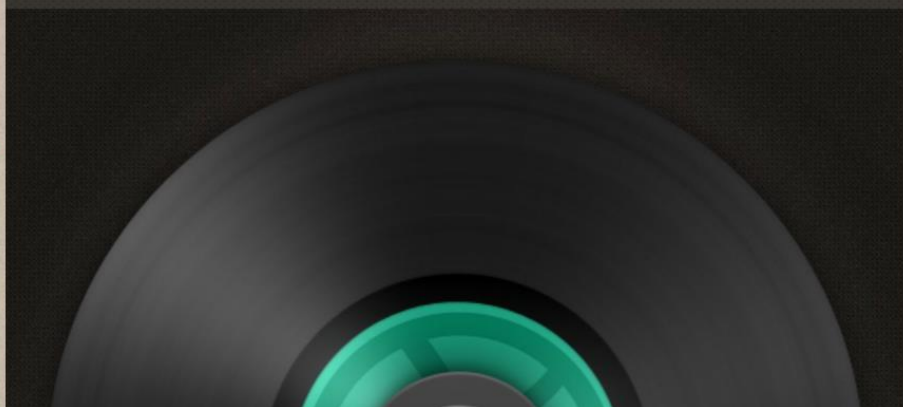
일간 전체순위

[교육 및 기술] 115위 (▲72)



Ep.0 프롤로그 - 도시녀와 시골녀의 로망 **골녀의 로망**

♥ 9



에피소드



오디오 1개

검색

검색



Ep.0 프롤로그 - 도시녀와 시골녀의 로망

17.12.13

0:20:40

♥ 9



감사합니다

우성희 annyung83@gmail.com